

# 영세 中企 “생산 인력도 못 뽑아... 인건비 등 지원 절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관련 간담회 고용부, 내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장치 비용 등 지원 노력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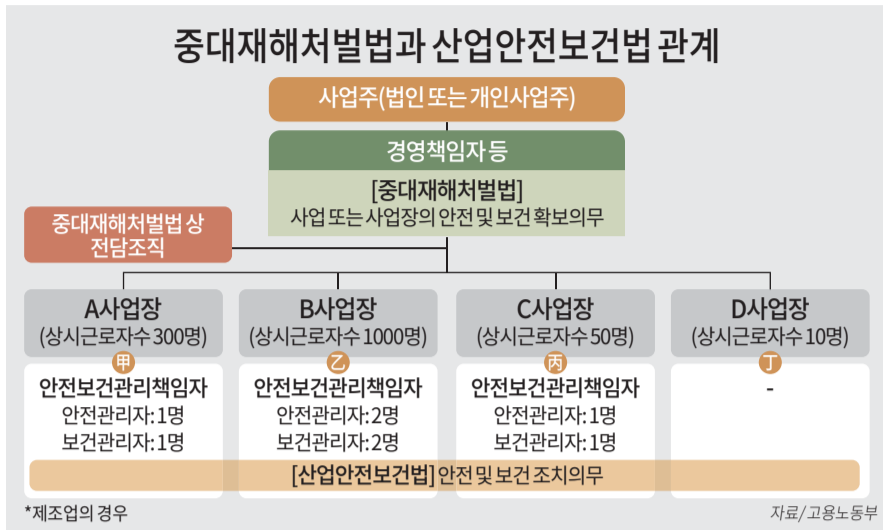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등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추진과제로 올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관리자들은 올해 1월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



종 애로와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 호소했다.

50인 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엄청난 서류 작업을 혼자서 다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100인 규모 금형업체 B사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며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50인 규모 방직업체 C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

승해 원가 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양현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중소기업 비중과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감축됐으나,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사망사고 만인율·만인율 0.52 퍼밀리어드)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1년 828명(만인율 0.43 퍼밀리어드)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인율 0.29 퍼밀리어드)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만인율 0.13퍼밀리어드), 독일(만인율 0.15 퍼밀리어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높이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당시 448명이던 감독관 정원을 올해엔 815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 → 1본부 2관 9과 1팀)와 지방관서 조직(건설산업지도과 13과 등)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삼표레일웨이, 日 제치고 대만 점유율 1위

글로벌 철도 시장 공략 박차 브라질·인도 등 수출국가 확대

삼표그룹 계열인 삼표레일웨이가 분기 해의 수출길을 넓히며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위상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분기기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0일 삼표에 따르면 분기기 개발 및 생산으로 출발한 삼표레일웨이는 현재



삼표레일웨이가 인도가 수출한 FBW(Flash Butt Welding) 머신.

철도궤도용품 생산뿐만 아니라 PSTS 궤도시스템 개발 및 생산, 철도궤도공사

시공과 레일연마를 포함한 궤도유지 보수사업 등 다각화된 철도전문기업으로 사업 초기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에 수출하는 것을 넘어 대만, 이란, 브라질,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으로 수출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오랜 기간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일본을 누르고 1998년 대만 동부철도건설국에 처음으로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태풍 피해 中企 특별 만기연장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집중 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기존대출 기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 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다만 올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찾아오고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등 지원 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번 특별 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시 최소 상환 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 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33개 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 호우, 태풍 힌남노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우리 중소기업 생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을 통한 금융 부담 완화와 함께 정책자금 공급, 경영 진단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유럽보증기관연합과 기술평가 협력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등 양해각서

기술보증기금이 유럽보증기관연합(AECM)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발굴과 기술평가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14~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2년 AECM 총회’에 기보가 구축한 유럽형 기술평가시스템(InnoRate)이 주제 발표로 초청을 받고 유럽 국가에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AECM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

럽 30개국 47개의 보증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유럽보증기관의 연합체로 유럽 의회, 유럽투자은행, 유럽투자기금, 국제결제은행, 세계은행 등을 대상으로 회원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김중호 기보 이사장은 “AECM과의 MOU체결은 InnoRate를 통해 입증된 기보의 우수한 기술평가시스템과 기술금융 노하우가 유럽 각국에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럽 국가에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해외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공영흡소핑 ‘동행축제’ 317억 판매기록

공영흡소핑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동행축제’에 참여해 300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거뒀다.

20일 공영흡소핑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동행축제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40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1300여 개 상품을 판매해 총 317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동행축제 기간 동안 25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공영흡소핑 모바일 앱과 물에 방문했다. 총 16일간 신규 고객 가입 수는 12만명을 넘어섰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반부패·청렴선도기관’ 도약 선언

청렴실천·이해충돌근절 결의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반부패·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 노사 공동 청렴실천·이해충돌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대전에 있는 소진공 본부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박성호 이사장과 박영호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동 주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 임직원이 청렴 문화 조성·확산에 직



(왼쪽 두번째부터)소진공 박성호 이사장과 박영호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노사 공동 서약 청렴실천·이해충돌근절 선서를 하고 있다. /소진공

접 참여하는 동시에 소진공의 강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 /사진 뉴스시스  
▲ 경찰 안전조치 중 스토킹보복살인 범죄 올해만 4건



▲ 대법 “스토킹범 불구속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 검사도 단 한 차례 ‘만취 운전’ 걸리면 최대 해임 /사진 뉴스시스

▲ 90억대 사기 혐의 ‘라임’ 김봉현 영장심사 종료...또 구속 기로  
▲ “유상증자 성공시켜줄게” 1억여원 챙긴 금융 브로커 구속